

대학생의 Big 5 성격특성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박시남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Big 5 성격특성이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KEEP)의 9, 10차년도 조사된 설문자료 중 2013학년도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1,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plus(7.2)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Big 5 성격 특성 중 외향성은 자기효능감, 행복 및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각각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향성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이르는 총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경증은 자기효능감 및 행복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친화성은 자기효능감, 행복,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실성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방성 또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세계노동기구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김윤옥, 2013).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9.0%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1)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팀장(psnam@sogang.ac.kr)



청년층 고용률(40.4%)은 회원국 평균(50.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40% 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김준일, 2015).

또한, 통계청(2014)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 377만 7000명 중 20.1%(76만 1000명)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8년 11.5%에 비해 여전히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청년층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2009년에 12.7%, 2010년에 16.8%로 높아진 데 이어 2011년(20.8%)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김준일, 2015).

이렇듯 청년실업의 증가와 취업이 되더라도 1년 미만에 이직을 당하는 청년층(15~29세)이 경험하는 미취업 또는 실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처음으로 직장을 획득하고 직업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년층은 그러한 사회진출시의 불안정성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직업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 더욱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실업에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길환·이덕로·방상석, 2013).

그리고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시직 및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 진입에 따라 1년 미만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청년층, 특히 취업을 앞두거나 아직은 취업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은 대학생들이 느끼는 향후 본인들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취업난에 따른 정신적 불안, 정서적 갈등 및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실업 상황 및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따른 1년 미만의 이직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학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손실이 크다는 차원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졸업생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 진입 경향을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의 진로행동, 즉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결정에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변인, 환경 및 상황적 변인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변인이나 특성으로 개인적 진로행동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개인은 어떻게 진로행동을 결정하는지, 진로행동 결정의 어려움을 지닌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향자, 1992).

진로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인간은 각자의 자질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행

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직업적 성격유형론이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성격유형론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이 일치될 때 직업적으로 만족한 선택과 적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직업선택 및 진로행동은 능력의 중요성 보다는 자신의 성격적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안창규, 2004). 그리고 효과적인 진로 의사 결정에 필요한 활동 및 기술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반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Taylor & Betz, 1983). 또한, 진로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하위요인으로서 삶의 의미, 긍정적 정서, 긍정적 대인관계, 몰입, 성취 순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효,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행동 관련하여 선행연구 된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 특성 중에서 Big 5 성격특성, 자기효능감 및 행복 등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진로행동, 즉 불확실한 첫 일자리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목적은 Big 5 성격특성이 어떻게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기효능감과 행복이라는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Big 5 성격특성

성격에 대한 영역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마다 출발점이 달랐지만 한 개인의 특성을 묘사하고자 성격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성격특성의 합의는 성격의 기본구조가 5개의 상위요인으로 통합된다는 것이고 이를 성격의 5 요인 모델(five-factor model) 또는 Big 5라고 불렀다(Carver, 2012).

이러한 5 요인 모델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Goldberg(1981)가 자신 연구와 다른 여러 연구를 재검토한 결과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을 일관되게 밝혀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요인을 'Big 5'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Pervin, Cervone, & John, 2005). McCrae와 Costa(1987)는 나이에 따른 성격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의 3개 군집을 산출하여 'NEO모델(NEO-PI)'을 개발하였으며, 후에 NEO검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친화성과 성실성을 추가한 모델(NEO-PI-R)을 개발하게 된다(Boyle, Matthews, & Saklofske, 2008).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E), 신경증(Neuroticism: N),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친화성(Agreeableness: A), 개방성(Openness: O) 등으로 나누어진다(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89). 이 다섯 가지 성격 특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은 타인과의 사교적이고 상호작용을 원하며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으로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형성한다. 여기서 낮은 외향성(즉, 내향성)은 높은 외향성의 반대개념이 아닌 외향적인 특징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않는지와 관련된 요인이다. 신경증이 높은 것은 걱정함, 초조함,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며 부적절한 감정의 변화 등으로 표현되고 반대의 속성으로는 정서적 안정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셋째,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특성을 지닌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이타심이 있고, 타인을 존중, 애정, 도덕성 및 배려와 겸손 및 수용성이 높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협조적이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냉소적이며, 타인에 대한 질투심을 많이 가지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적대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

넷째,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의 정도와 실수 없이 자기의 일을 잘 추진해나가는 성격을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근면하고 믿음직스러운 특성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고, 신뢰감을 주는 특성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취욕을 나타낸다. 반면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일관성이나 책임감이 없다.

다섯째, 개방성은 지적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인생의 실존적 도전에 더욱 더 많이 관여하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방성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 창의적이고 예술적 표현을 좋아하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도전적이다(손희전, 2013; 장혜정·손희전, 2014).

따라서 big 5 성격특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인의 성격을 설득력 있는 모델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며, 친화성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등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와 연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인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을 가지는 성격유형을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진로행동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행동이란 진로결정 대안 중에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말한다(Miller, 1968). 이 과정에서 개인이 정보를 얻고 대안을 구성하며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작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진로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인지 과정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진로지도나 상담과정에서 인지나 태도 측면의 향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경향을 벗어나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진로행동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예로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이 있다(김봉환, 1997; 이길환·이덕로·방상석, 2013).

백광숙(2008)의 연구에서는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9명의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행동을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과 하향 취업화,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 등의 변수로 분류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은 충청권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와 2개의 전문대학의 대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Big 5 성격특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태도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의 연구와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행동의 변수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청년층 실업의 문제와 더불어 취업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나의 능력과 연관된 신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기술과 능력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능력과 연관된 신념에 관한 것이다(Maddux, 2002).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신념, 즉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인지적 자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과정으로 정의된다(Lopez, 2011b; Stajkovic & Luthans, 1998).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낙관성,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 모두 개인적

인 효능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Lopez, 2011a).

Taylor와 Betz(1983)는 효과적인 진로 의사 결정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에 관하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Lent와 그 동료들(1994)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흥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로 선택, 진로행동, 그리고 수행 달성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Betz와 그 동료들(1996)은 Holland의 성격유형을 기초로 직업적 자기효능감 검사(Skills Confidence Inventory)로 측정하여 직업 흥미와 직업 자기효능감, 직업 선택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2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흥미검사 점수 간에 의미 있는 상관성이 있으며 어느 한 영역에 대한 흥미와 이에 대한 자신의 확신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 행복

행복(happiness)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하나의 일치된 정의는 없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행복과 관련된 용어만 해도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 상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대체하여 연구하였다(송창용·손유미, 2013).

Diener(1984)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행복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복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구별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다. 둘째, 행복은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Diener와 그 동료들(1999)은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로 정의된다고 하였다(이정열, 2009).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변인으로 성별, 나이, 건강, 소득, 교육, 사회문화적 수준 등이 있고 사회 심리학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회복력, 스트레스 등이며, 인간 관계적 변인으로 부모 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의사소통 방식,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적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학교 및 거주지역의 안전, 지역사회 환경, 사회제도와 정책, 문화 등이 이에 속한다(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송창용·손유미, 2013; 허승연, 2009). 진로행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미효(2013)가 D 시에 소재한 K 대학교 재학 중인 301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하위요인으로서 삶의 의미, 긍정적 정서, 긍정적 대인관계, 몰입,

성취 순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복과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 진입 경향에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5. 이론적 분석틀

가. 외향성, 자기효능감 및 행복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경향과의 관계

Big 5 성격특성 중 외향성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은 충청권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와 2개의 전문대학의 대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연구에서 외향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성과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하여 모화숙과 그 동료들(2013)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외향성에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각각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현동(2012)이 한국고용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생 484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취업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취업선호도는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포함한 이분 범주형 변수를 역문항으로 하여 더미변수 처리하고 이를 모두 합한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진로행동과는 역문항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효능감은 진로행동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진로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미효(2013)가 D 시에 소재한 K 대학교 재학 중인 301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행복의 하위요인이 합리적 진로의 사절정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외향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1-2> 외향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1-3> 외향성에서 행복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1-4>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나. 신경증, 자기효능감 및 행복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경향과의 관계

Big 5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신경증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경증과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 관련하여 모화숙 외 2인(2013)의 선행 연구결과는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에도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하였듯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복과 진로행동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가설 2-1> 신경증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2-2>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3> 신경증에서 행복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2-4>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다. 친화성, 자기효능감 및 행복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경향과의 관계

Big 5 성격특성 중 친화성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친화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화성과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하여 모화숙 외 2인(2013)의 연구결과는 친화성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1> 친화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2> 친화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3-3> 친화성에서 행복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4> 친화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라. 성실성, 자기효능감 및 행복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경향과의 관계

Big 5 성격특성 중 성실성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성실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과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에 대한 모화숙 외 2인 (2013)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성실성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1> 성실성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가설 4-2>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4-3> 성실성에서 행복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4-4>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마. 개방성, 자기효능감 및 행복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경향과의 관계

Big 5 성격특성 중 개방성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길환과 그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개방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성과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관계에 대한 모화숙 외 2인 (2013)의 선행연구 결과는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각각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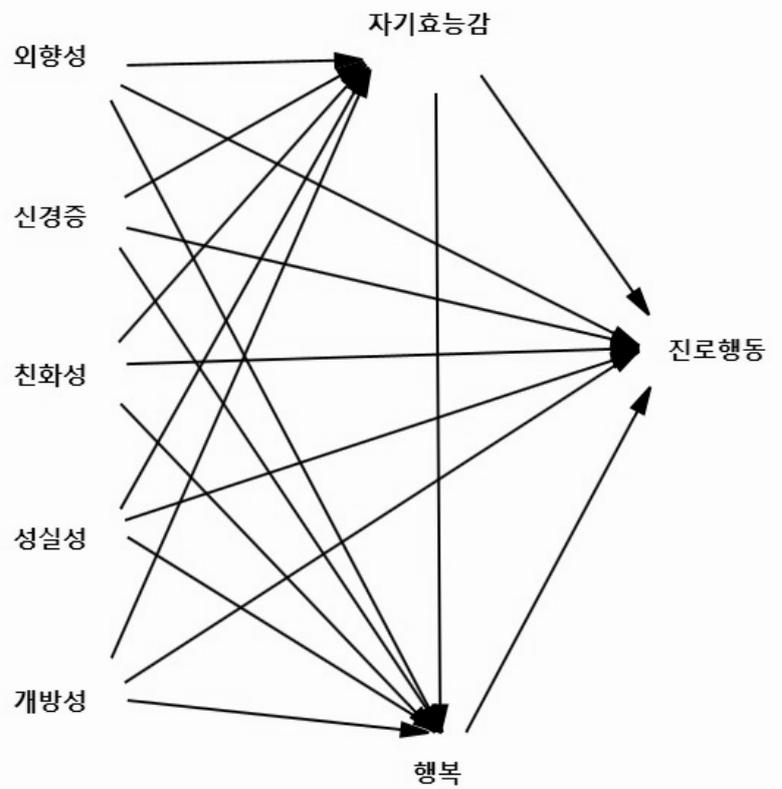
- <가설 5-1> 개방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5-2>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5-3> 개방성에서 행복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5-4>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바. 이론적 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Big 5 성격특성이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 즉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잠재변수 중 Big 5 성격특성은 외생 변수이고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이자 내생변수이고 진로행동은 종속변수이다. 그리고 행복감에 대한 측정은 한 문항의

지표변수를 사용하였고 이것도 매개변수이자 내생변수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학생의 Big 5 성격특성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그림 1]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은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및 <가설 5>을 검증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 <가설 1> 외향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신경증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3> 친화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을 것이다.
- <가설 4> 성실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가설 5> 개방성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을 것이다.



[그림 1] 이론적 틀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청장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국 중3, 고3(전문계고 포함) 등 6,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하였고 매년 추적하여 2013년 10차 조사까지 진행된 대표적인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9차)과 2013년(10차)의 중학교 코호트와 고등학교 코호트(전문계고 포함), 2년제 전문대 보정 및 4년제 대학보정 코호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자료에서 전문대학 및 대학 재학(휴학, 수료 포함) 중인 대학생 1,146명 중 이상치 12명을 뺀 1,134명의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구조 회귀 모델 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 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Joreskog와 Sorbom(1989)은 연구모델하의 관찰변인의 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관찰변인 수가 12개 이상이면 적절한 피험자의 수는 $n=1.5 \times \text{관찰변인 수} \times (\text{관찰변인 수} + 1)$ 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문수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관찰변인 수가 23일 때 828로 이보다 많은 사례수인 1134개이므로 조건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013년 시점, n=1134)

항목		빈도	백분율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51	75.0	학교 소재지	서울	299	26.4
	여	283	25.0		부산	110	9.7
학교 유형	2년 전문대	167	14.7		대구	53	4.7
	3년 전문대	55	4.9		인천	31	2.7
	4년 전문대	12	1.1		광주	39	3.4
	4년제 대학교	876	77.2		대전	64	5.6
	기타	24	2.1		울산	13	1.1
패널 자료	중3 코호트	855	75.4		경기	156	13.8
	전문고3코호트	84	7.4		강원	49	4.3
	일반고3코호트	164	14.5		충북	54	4.8
	2년제 대 보정	29	2.6		충남	86	7.6
	4년제 대 보정	2	0.2		전북	51	4.5
재학 학년	1학년	97	8.5		전남	25	2.2
	2학년	179	15.8		경북	63	5.6
	3학년	290	25.6		경남	31	2.7
	4학년	368	32.5		세종	3	0.3
	4학년 이상	200	17.6	외국	7	0.6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g 5 성격특성은 2012년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 I에서 5개의 각 성격특성별 4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각각의 여섯 문항을 사용하였다. 5 요인의 성격특성은 6문항으로 측정된 단일 척도로 개별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할 경우 추정해야 할 자유모수치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문항 꾸러미 방법(item parceling method) 방법을 사용하여 2문항씩 3개의 지표변인으로 처리하여 추정모델 속의 자유 모수치의 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표집의 수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문수백, 2009).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분석(n=1134)

잠재변수	측정변수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외향성	외향성_01	분위기 주도, 주눅 없음	2	.852
	외향성_02	많은 대화, 처음 대화 시작	2	
	외향성_03	시선 집중, 말 많이 함	2	
신경증	신경증_01	걱정 많이 함, 할 잘냄	2	.833
	신경증_02	짜증 잘 냄, 자주 우울	2	
	신경증_03	마음 심란, 기분 변화 심함	2	
친화성	친화성_01	다른 사람 관심, 따뜻한 마음	2	.766
	친화성_02	편하게 해줌, 기분 이해	2	
	친화성_03	시간 잘 할애, 타인 감정 공감	2	
성실성	성실성_01	즉각 청소, 계획 실행	2	.756
	성실성_02	일 열심, 세밀한 주의	2	
	성실성_03	준비성 투철, 질서 정연	2	
개방성	개방성_01	상식 풍부, 상상력 풍부	2	.735
	개방성_02	좋은 아이디어, 깊은 생각	2	
	개방성_03	어려운 단어 사용, 이해 빠름	2	
자기효능감	잘하는 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름	1	.819
	결단력	나 자신이 무리 없이 결정	1	
	계획수행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함	1	
행복		현재 행복 정도	1	-
진로행동	학력수준	학력수준 적합 하지 않음	1	.629
	전공분야	전공분야 일치 하지 않음	1	
	정규직	정규직 아니면 취직 않음	1	
	기업규모	중소기업에 취직 않음	1	

자기효능감의 측정 문항은 2013년 설문지 일반적 특성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F9Y15005).’,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F9Y15008).’, ‘내가 계획한 것은 잘할 수 있다(F9Y15009).’로 5점 리커트척도로 묻는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자기효능감, 즉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행복의 측정도 2013년 설문지 일반적 특성에서 ‘귀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F9Y16016)’로 10점으로 표시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행동의 측정 문항은 2013년 설문지 취업 선호도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나는 나의 학벌이나 학력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F9Y13010).’, ‘나는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F9Y13011).’, ‘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F9Y13012).’, ‘나는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F9Y13006).’로 예(1), 아니오(2)로 답한 것을 더미 변수 예는 0으로 아니오는 1로 전환하여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을 통하여 자료의 성격과 다변량 분석의 가정이 충족됨을 점검하였다. 또한, Mplus (7.2)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여 구조 회귀 모델의 모델 부합도와 인과 효과 크기를, 유령(Phantom) 변수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및 총효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특히 최근 Mplus 프로그램만이 제공하는 범주형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분석을 위한 WLSMV 추정 방법은 Weighted least square parameter 추정을 대각선 가중 매트릭스와 강건한 표준오차 및 평균과 분산으로 보정한 χ^2 (chi-square) 차이 테스트 방법을 사용한다(Brown, 2006).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델에 포함된 변인으로 Big 5 성격특성, 자기효능감, 행복, 진로행동에 대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행복을 제외한 각 측정변인의 표준편차는 .41에서 .7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식하는 행복이 표준편차 1.9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격특성, 자기효능감 및 진로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범주형 변수인 진로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변인은 왜도 3.0 이하, 첨도 7.0(0기준) 이하의 기준에 포함되어 단변량 정규 분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그런데 관찰변수들이 각각의 분포가 정상분포이더라도 다변량 분포가 항상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보증하지는 못하나 정상분포일 개연성은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충족하기 위한 단변량 정규분포 정규성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이기중, 2012; Kline, 2011). 그리고 연구모델의 측정변인 간의 상호 상관행렬은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 행렬(n=1134)

변인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효능감			행복	진로행동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	23
1. 외향성1	1																						
2. 외향성2	.70	1																					
3. 외향성3	.63	.67	1																				
4. 신경증1	-.02	.04	.14	1																			
5. 신경증2	-.08	-.04	.06	.65	1																		
6. 신경증3	-.13	-.10	-.01	.49	.74	1																	
7. 친화성1	.27	.32	.29	.04	-.00	.08	1																
8. 친화성2	.33	.31	.22	-.14	-.17	-.15	.47	1															
9. 친화성3	.26	.25	.23	.02	-.02	.02	.43	.49	1														
10. 성실성1	.17	.16	.10	-.03	-.06	-.07	.10	.20	.19	1													
11. 성실성2	.24	.22	.18	.09	-.03	-.01	.24	.25	.25	.45	1												
12. 성실성3	.27	.26	.23	.00	-.06	-.05	.26	.27	.26	.53	.51	1											
13. 개방성1	.27	.26	.27	.02	.02	.06	.25	.27	.19	.12	.25	.28	1										
14. 개방성2	.24	.23	.24	.10	.08	.12	.29	.28	.26	.15	.31	.28	.58	1									
15. 개방성3	.26	.22	.22	-.05	-.03	.00	.15	.23	.13	.16	.18	.24	.48	.38	1								
16. 효능감1	.22	.22	.19	-.09	-.10	-.13	.14	.15	.07	.12	.17	.19	.19	.17	.22	1							
17. 효능감2	.24	.23	.23	-.13	-.13	-.14	.14	.18	.11	.16	.16	.21	.19	.17	.24	.56	1						
18. 효능감3	.20	.19	.17	-.12	-.11	-.11	.11	.13	.10	.19	.17	.23	.14	.16	.19	.56	.68	1					
19. 행복	.19	.20	.15	-.13	-.21	-.22	.10	.11	.08	.14	.11	.13	.09	.08	.11	.35	.35	.33	1				
20. 진로행동1	-.00	-.03	.03	.06	-.01	-.03	-.03	-.03	.04	.03	.01	.02	-.04	-.03	-.12	-.12	-.06	-.06	-.00	1			
21. 진로행동2	.05	.04	.05	.05	.02	.02	-.02	-.03	-.00	-.06	-.02	-.06	.02	.00	-.03	-.20	-.10	-.11	-.07	.38	1		
22. 진로행동3	.04	.03	.07	.04	-.01	-.02	-.03	-.02	.06	.03	.06	-.01	.05	.07	-.01	-.06	-.00	-.02	.06	.35	.25	1	
23. 진로행동4	-.04	-.04	-.06	-.01	-.03	-.01	-.05	-.03	.03	-.06	-.03	-.05	-.00	.01	-.06	-.08	-.10	-.11	-.00	.33	.22	.25	1
평균	1.8	1.8	1.7	1.4	1.2	1.2	1.8	2.0	1.8	1.6	1.7	1.8	1.8	1.8	1.6	3.7	3.7	3.7	7.0	.55	.65	.35	.79
표준편차	.51	.53	.54	.55	.59	.65	.48	.45	.51	.53	.53	.47	.53	.51	.46	.76	.79	.75	1.9	.50	.48	.48	.41
왜도	-.10	-.07	.08	.07	.20	.12	-.1	.07	-.11	.15	.04	-.00	.00	.17	.39	-.44	-.25	-.25	-.92	-.14	-.63	.62	-1.5
첨도	.71	.47	.14	.13	.22	-.02	.72	1.2	.41	.06	.25	.48	.18	.31	.60	.49	-.08	.24	1.1	-2.0	-1.6	-1.6	.11

2. 연구모델의 구조관계분석

구조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는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Anderson과 Gerbing이 제안한 2단계 모델화 방법을 사용하는데(문수백, 2009; Anderson & Gerbing, 1988; Kline, 2011) 본 연구에서도 2단계 모델화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의 신뢰도와 분산추출정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변인에 대한 개념타당도와 판별타당성을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확인된 측정변인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구조 회귀 모델 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인 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가. 측정모델 분석

WLSMV 추정 방법을 통한 모델 부합도의 결과는 $\chi^2=731.856(df=203, p=.001)$ 로 나타났고, RMSEA=.048(LO: .044, HI: .052), TLI=.885, CFI=.908 등으로 나타나 모두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표준 적재값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개념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요인별 측정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 정도(AVE)는 각 측정변인 모두 .7 이상이어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각 잠재변인의 신뢰도가 .8 이상이어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측정변인의 모수치 추정결과(n=1134)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요인 적재값	표준 적재값	SE	C.R.	p	잠재변인 신뢰도	분산 추출정도 (AVE)
외향성	외향성1	1	.850	고정	고정	고정	.956	.878
	외향성2	1.033	.849	.036	28.386	.001**		
	외향성3	.930	.752	.039	23.954	.001**		
신경증	신경증1	1	.651	고정	고정	고정	.940	.842
	신경증2	1.542	.945	.069	22.449	.001**		
	신경증3	1.442	.794	.072	19.988	.001**		
친화성	친화성1	1	.661	고정	고정	고정	.917	.787
	친화성2	1.058	.751	.066	16.003	.001**		
	친화성3	.989	.626	.061	16.232	.001**		
성실성	성실성1	1	.570	고정	고정	고정	.917	.791
	성실성2	1.239	.714	.086	14.386	.001**		
	성실성3	1.270	.821	.079	16.059	.001**		
개방성	개방성1	1	.741	고정	고정	고정	.918	.790
	개방성2	.937	.729	.050	18.632	.001**		
	개방성3	.709	.603	.040	16.844	.001**		
자기효능감	잘하는 일	1	.744	고정	고정	고정	.887	.723
	결단력	1.146	.819	.061	18.679	.001**		
	계획수행	1.009	.761	.053	19.162	.001**		
진로행동	학력수준	1	.675	고정	고정	고정	-	-
	전공분야	1.226	.828	.101	12.100	.001**		
	정규직	1.030	.695	.084	12.206	.001**		
	기업규모	.933	.630	.082	11.447	.001**		

**p < .05

나. 구조회귀 모델 분석

구조회귀 모델은 경로모델과 측정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 중 가장 일반화된 형태이다. 경로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회귀 모델을 설정하면 인과효과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회귀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같이 관찰변수를 잠재변수의 측정 변수로 나타내는 측정모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까지도 다룰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이다. 이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조회귀 모델로 설정하였다(Kline, 2011).

WLSMV 추정 방법을 통한 모델 부합도의 결과는 $\chi^2=731.856(df=203, p=.001)$ 로 나타났고, RMSEA=.048(LO: .044, HI: .052), TLI=.885, CFI=.908 등의 부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부합도이고 .05에서 .08 사이면 적합한 부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부합도라 하였다.

TLI와 CFI는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부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문수백, 2009). TLI는 .90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χ^2 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조 회귀 모델 내 변수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델 추정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p	표준화된 추정치
외향성 → 자기효능감	.255	.054	.001***	.198
외향성 → 행복	.448	.153	.003***	.103
외향성 → 진로행동	.158	.079	.046**	.102
신경증 → 자기효능감	-.302	.047	.001***	-.193
신경증 → 행복	-.798	.145	.001***	-.151
신경증 → 진로행동	-.054	.077	.483	-.029
친화성 → 자기효능감	-.097	.083	.244	-.055
친화성 → 행복	-.030	.242	.900	-.005
친화성 → 진로행동	-.085	.131	.515	-.040
성실성 → 자기효능감	.319	.077	.001***	.173
성실성 → 행복	.182	.251	.469	.029
성실성 → 진로행동	.072	.121	.594	.019
개방성 → 자기효능감	.303	.067	.001***	.213
개방성 → 행복	-.223	.211	.292	-.046
개방성 → 진로행동	.057	.100	.569	.030
자기효능감 → 행복	.1295	.109	.001***	.385
자기효능감 → 진로행동	-.358	.068	.001***	-.298
행복 → 진로행동	.034	.016	.038**	.094

주: *는 $p < .1$, **는 $p < .05$, ***는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8개의 경로를 제거하여도 초기 구조 회귀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부합도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초기모델과 수정모델의 모델 적합도 비교(n=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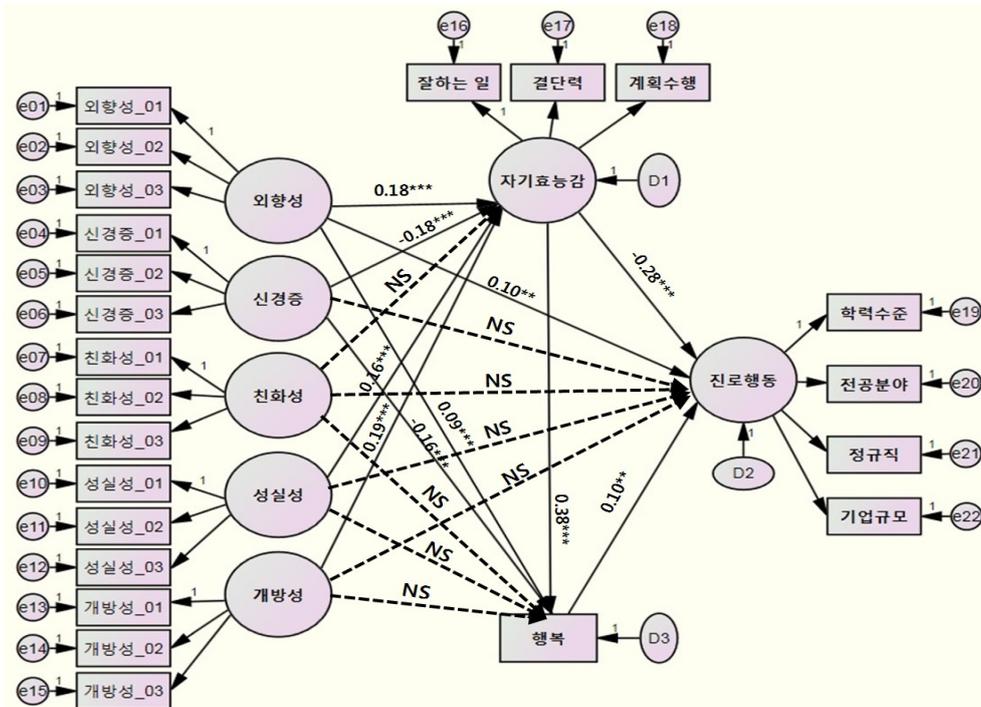
모델	χ^2	df	TLI	CFI	RMSEA		
					AVE	LO90	HI90
초기모델	731.86	203	.885	.908	.048	.044	.052
수정모델	663.33	211	.905	.921	.043	.040	.047

특히 χ^2 (chi-square) 차이 테스트는 이변형 변수가 포함된 WLSMV 추정에서는 기존의 최대우도법(ML)과 같은 일반적인 χ^2 (chi-square) 차이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Mplus(7.2)에 명령어를 사용하여 따로 분석하여야 한다(Muthen & Muthen, 2014). 이에 그 방법에 따라 <표 7>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수정 모델의 자유도가 8 증가할 때 χ^2 값이 3.663 만큼 나빠지는데 이는 자유도 8일 때 15.507(유의수준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p=.886로 .05보다 큼)으로 나타난다. 이에 자유도가 증가한 간명한 수정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다.

〈표 7〉 WLSMV 추정에서 초기모델과 수정모델의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p	검증
3.663	8	.8862	df=8 차이일 때 $\chi^2=15.507$ 보다 작은 3.663

최종 구조 회귀 모델의 표준화 모수치 추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 구조 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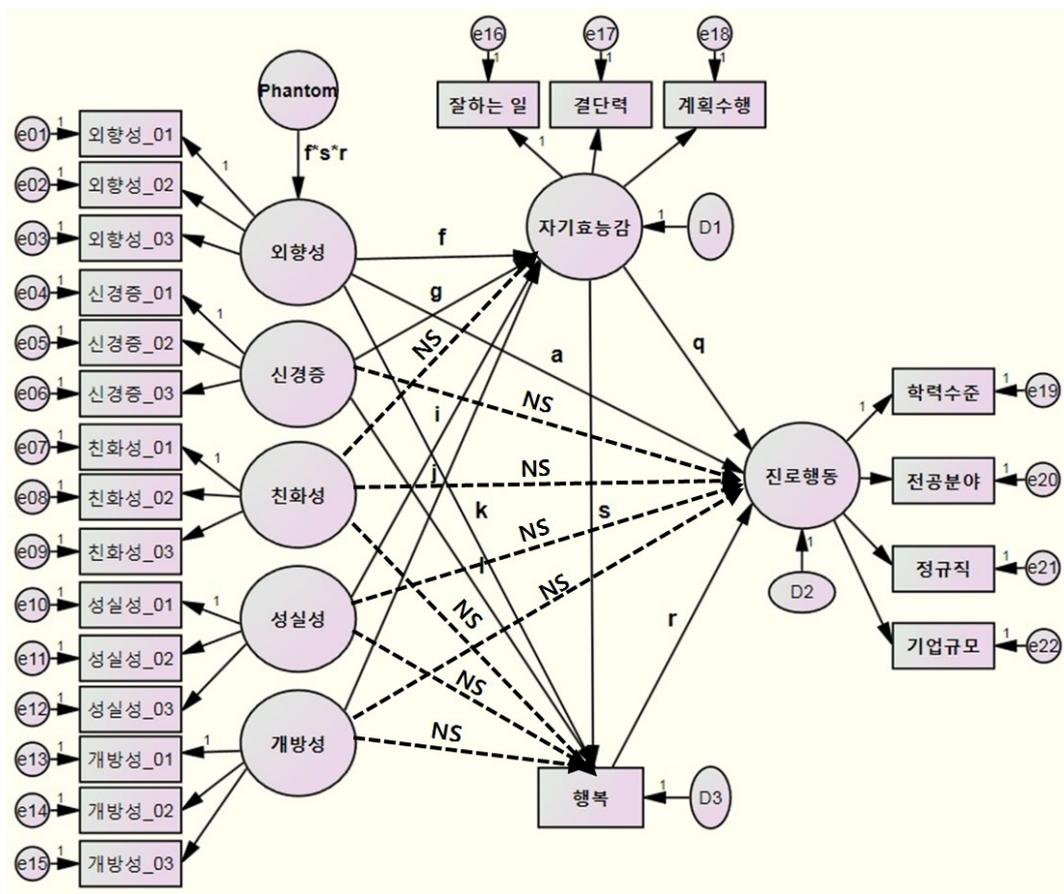
이에 가설로 설정된 경로에 대한 C.R.값과 p 값을 검토하여 인과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외향성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2.062, p=.03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4.89,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2.192, p=.02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경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5.999,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경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5.991,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3.920,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4.063,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12.251,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5.304,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C.R.=2.192, p=.02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델의 간접효과 유의성 및 총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3]에서 자기효능감과 행복은 Big 5 성격특성 즉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라는 잠재변수를 진로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이라 부른다. 변수 간의 이러한 효과관계는 Big 5 성격특성의 관점에서는 간접효과이고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점에서는 매개효과가 된다(문수백, 2009).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 Sobel test로 검증해왔다. 하지만 Shrout와 Bolger (2002)는 실증 연구를 통하여 두 경로의 계수 값이 각각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 하더라도 두 계수 값의 곱으로 계산되는 매개효과가 반드시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자료가 비정규분포를 가정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사용을 권장한다(문수백, 2009; 홍세희, 2011).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령(phantom) 변수를 이용하는데 유령(phantom)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로 분산은 0으로 고정하고 요인 적재값에 측정하고자 하는 간접효과의 경로를 고정(constrain)하여 생성한다. 유령(phantom) 변수를 추가하여도 변수의 모수들이 모두 고정되어서 모델 부합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Loehlin, 2004). 이러한 유령(phantom) 변수는 모수 고정(constrain)이 가능한 LISREL이나 Mplu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홍세희, 2011; Cheung, 2009).

Amos 18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지원하나 간접효과의 총합계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간접효과를 개별적인 효과로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유령(phantom) 변수를 도입한 모수 고정이 가능하지 않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Mplus 7.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림 3]같이 유령(phantom) 변수에 분산을 0으로 고정하고 요인 적재 값을 고정(constrain)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1,000회로 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서 <표 11>과 같다(박시남·최은수, 2012; 홍세희, 2011; Rindskopf, 1984).



[그림 3] 유령 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및 효과 크기 검증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해 추정한 95% 신뢰 구간 간격(confidence intervals: CI)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첫째, 외향성에서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f*s*r$)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향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f*q$)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향성에서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k*r$)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함께하기에 간접효과를 모두 합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I	
			lower	upper
외향성→자기효능감→행복→진로행동	$f*s*r$.020**	.013	.002 .046
외향성→자기효능감→진로행동	$f*q$	-.133***	-.083	-.235 -.064
외향성→행복→진로행동	$k*r$.014**	.009	.002 .037
간접효과의 총합		-.099***	-.062	-.194 -.035

주: *= 90% 신뢰구간(CI), **= 95% 신뢰구간(CI), ***= 99% 신뢰구간(CI)

<표 9>는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직접효과(a)와 <표 8>에서의 간접효과의 총합 $\{(f*q)+(f*s*r)+(k*r)\}$ 을 더한 총효과를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총효과는 유의성 90% 신뢰 구간 간격(CI)에서도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외향성에서 진로행동의 총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CI	
		lower	upper
외향성→진로행동	a	.124*	.018 .2249
외향성→진로행동의 간접효과의 합	$(f*q)+(f*s*r)+(k*r)$	-.099***	-.194 -.035
총효과의 합	$a+(f*q)+(f*s*r)+(k*r)$.025	-.079 .122

주: *= 90% 신뢰구간(CI), **= 95% 신뢰구간(CI), ***= 99% 신뢰구간(CI)

<표 10>는 신경증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g*s*r$)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g*q$)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경증에서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l*r$)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신경증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함께하기에 간접효과의 총합을 구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0%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경증에서 진로행동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I		
			lower	upper	
신경증→자기효능감→행복→진로행동	$g*s*r$	-.013**	-.007	-.033	-.002
신경증→자기효능감→진로행동	$g*q$.087***	.047	.036	.167
신경증→행복→진로행동	$l*r$	-.028**	-.015	-.073	-.004
간접효과의 총합		.046*	.025	.005	.090

주: *= 90% 신뢰구간(CI), **= 95% 신뢰구간(CI), ***= 99% 신뢰구간(CI)

<표 11>는 성실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i*s*r$)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i*q$)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성실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함께하기에 간접효과를 모두 합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실성에서 진로행동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I		
			lower	upper	
성실성→자기효능감→행복→진로행동	$i*s*r$.024**	.012	.002	.057
성실성→자기효능감→진로행동	$i*q$	-.158***	-.083	-.278	-.073
간접효과의 총합		-.134***	-.070	-.244	-.059

주: *= 90% 신뢰구간(CI), **= 95% 신뢰구간(CI), ***= 99% 신뢰구간(CI)

<표 12>는 개방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j*s*r$)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5%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방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j*q$)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개방성에서 진로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함께하기에 간접효과를 모두 합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성은 99% 신뢰 구간 간격(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개방성에서 진로행동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I		
			lower	upper	
개방성→자기효능감→행복→진로행동	$j*s*r$.021**	.013	.001	.051
개방성→자기효능감→진로행동	$j*q$	-.139***	-.084	-.250	-.063
간접효과의 총합		-.118***	-.072	-.218	-.053

주: *= 90% 신뢰구간(CI), **= 95% 신뢰구간(CI), ***= 99% 신뢰구간(CI)

4. 논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가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결과는 첫째, 외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길환 외(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교체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첫 일자리의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외향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김현동(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외향성이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미효(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외향성에서 자기효능감과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향성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과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이길환 외(2012)의 연구에서처럼 두 변수만의 관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자기효능감과 행복이라는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는 두 매개변수의 개인 수준에 따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으로 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에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직접효과와 모든 간접효과를 더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로의 효과가 상쇄(offset)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가설 2에 대한 결과는 첫째, 신경증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

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길환 외(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결국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은 높아진다. 이는 신경증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에 민감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면 미취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증가하고 결국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을 시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신경증이 높으면 행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행복한 감정이 낮아지고 결국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과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경증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경증은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경증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에 대한 결과는 친화성이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 자기효능감 및 행복에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길환 외(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친화성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타인과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같이 타인 지향성이 강하며 자기중심이기보다 타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격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기효능감, 행복감, 불안정한 첫 일자리의 진입 경향 등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모화숙 외(20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과 친화성이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성격 5요인의 중다 회귀분석에서 친화성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친화성은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4에 대한 결과는 첫째, 성실성이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길환 외(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성실성은 열성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맡은 일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성향이다. 자신의 진로 행동을 결정할 때에 성급한 결정보다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결정하는 성향을 보이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성실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성실성이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과 행복을 매개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실성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실성이 높은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설 5에 대한 개방성의 결과도 앞의 성실성과 같이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방성이 높은 대학생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개방성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Big 5 성격특성인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자기효능감 및 행복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각 성격특성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Big 5 성격특성, 자기효능감, 행복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대학생들이 미래의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에 있어서 Big 5 성격특성과 더불어 자기효능감 및 행복을 동시에 측정하여 내담자 각각에 특성에 맞는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인 진로상담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출된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Big 5 성격 특성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행복을 많이 느끼며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높은 대학생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안전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안전한 일자리를 가지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감이 높은 학생은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결국,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은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매개 변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 취직하느

나 혹은 안정된 일자리로 취직하느냐로 갈리게 된다. 외향성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직·간접 효과의 합을 구하면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결국,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경증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신경증에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간접 효과의 합을 구하면 긍정 효과가 부정 효과보다 커 총효과의 합은 결과적으로 긍정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 친화성은 자기효능감, 행복,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친화성이 타인 중심적인 성격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실성은 자기효능감에만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실성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개방성 또한 자기효능감에만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생의 Big 5 성격특성에서 외향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로행동의 예측을 위하여 Big 5 성격특성을 만을 측정할 경우에는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Big 5 성격 특성과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 사이에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성실성과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완전매개를 이루고 있고 자기효능감의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결국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대로 행복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Big 5 성격 특성에서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행동의 상담을 위해서는 Big 5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수준을 동시에 측정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 능력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일부 측정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여 개념 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KEEP 9차(2012년)년도 조사에 사용된 Big 5 성격 검사지는 간의로 하는 성격검사 30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점수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대학생의 불안정한 첫 일자리로의 진입 경향으로 한정시켰는데 이는 불안정이라는 측면만을 일부 강조하므로 진로행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와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자료는 9차년과 10차년도에 조사한 2개년을 사용하여 사실상 횡단연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가 포함된 잠재성장모델 및 자귀회귀 교차지연 모델 등을 이용한 종단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Big 5 성격특성에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횡단자료(단층)로 분석하여 집단수준의 결과를 개인수준으로 일반화하는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적 수준의 결과를 집단수준으로 일반화하는 원자론적 오류를 유발(홍세희, 2012)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개인효과와 조직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다층분석을 통하여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향자(1992). 진로의사결정모형의 문헌적 고찰. 인간이해. 제13권, 3-19.
- 권세원 · 이해현 ·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 탄력성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경준(2013). [시론] 지식유통의 모델을 바꾸자. 중앙일보 2013. 8. 7.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윤옥(2013). 세계 청년실업문제의 심화: 원인과 해결책. 이코노미스트 2013. 4. 27.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일(2015). 실업률 9% ‘청년의 눈물’. 동아일보 2015. 1. 15.
- 김현동(2012). 대학생의 취업선호도 결정요인 탐색 -자존감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7차학술대회.
- 모화숙 · 박미라 · 하대현(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761 - 781.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학지사.
- 박시남 · 최은수(2012). 사립대학교 행정 직원의 오센틱 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30(1), 397-420.
- 백광숙(2008).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손희전(2013). 청년층의 BIG 5 성격 특성. The HRD Review. 2013년 7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 손유미(2013). 청소년의 행복결정 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8차학술대회.
- 안창규(2004). 중등학교 진로지도의 새로운 접근. 상담과 지도, 39, 21-31.
- 이기종(2012). 구조방정식 모형: 인과성 · 통계 분석 및 추론.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길환 · 이덕로 · 박상석(2012). 성격 5 요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1(4), 397-432.
- 이경열(2009). 행복증진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2), 1259-1275.
- 장혜정 · 손희전(2014). 성격과 건강상태에 따른 SNS 이용 행태-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9차학술대회.
- 정미효(2013). 대학생의 행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계청(2014).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28458.
- 홍세희(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모형. 서울: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홍세희(2012). 위계적 자료 분석을 위한 횡단 다층모형. 서울: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1).
- Boyle, G. J., Matthews, G., & Saklofske, D. H. (Eds) (2008).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assessment* (1st ed., Vol2).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heung, M. W. L. (2009). Comparison of methods for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of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2), 425 - 438. doi:10.3758/BRM.41.2.42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Goldberg, L. R.(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Wheeler, L.(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pp.141-199.
- Goldberg, L. R.(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pp.1216-122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 Loehlin, J. C. (2004). *Latent variable models(4th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opez, S. J. (2011a).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 (권석만, 정지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저 Positive psychology: Discovering human strengths(Eds.), 2008 출판)
- Lopez, S. J. (2011b). 역경을 통해 성장하기 (권석만, 박선영, 하현주 역). 서울: 학지사. (원저 Positive psychology: Growing in the face of adversity(Eds.), 2008 출판)
- Maddux, J. E. (2002). Self-efficacy: The power of believing you ca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277-28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rae, R. R. and Costa, P. T., Jr.(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81-90.
- Miller, A. W.(1968). Learning Theory and Vocational 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p.47.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California, CA: Muthén & Muthén.
- Pervin, L. A., Cervone, D., & John, O. P. (2005).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Hoboken, NJ: Wiley.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s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 37-47.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tajkovic, A. D., & Luthans, F. (1998).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Going beyond traditional motiva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Organizational Dynamics*, 26, 62-7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Abstract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Self-Efficacy, Happiness, and Career Behaviors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k Si-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self-efficacy, happiness and career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self-efficacy, happiness, and career behaviors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sets (9th and 10th years) were analyzed with Mplus (7.2) program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traversion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happiness, and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Because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the extraversion had indirect negative influences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self-efficacy. These results synthesized that extravers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in the overall effects. Second, a neuroticis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happiness. Because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the neuroticism had indirect positive influences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self-efficacy. Third, the agreeableness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happiness, and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Fourth, the conscientious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also indicated indirect negative influences on entry to an unsafe first job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self-efficacy. Fifth, the openness to experience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the openness to experience had indirect negative influences on the entry to the unsafe first job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self-efficacy.

Key words: KEEP, big 5 personality factors, self-efficacy, happiness, career behavior.